



KOREAN  
ELECTRICAL  
MANUFACTURER  
ASSOCIATION

# 정책 동향

## 산자부, 'IT적용 신전력기기' 개발 착수

산업자원부가 정부 차원의 전력산업에 정보기술(IT)을 도입하기 위한 첫번째 사업으로 IT적용 신전력기기 개발 사업에 착수했다.

산자부는 이를 위해 오는 2008년 8월말까지 총 87억원을 투입, 신전력기기를 개발할 예정이라고 지난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한국전기연구원을 총괄 주관기관으로 한 산학연 공동연구 형태를 띠게 되며 앞으로 5년간 362kV 개폐제어형 차단기 개발 25.8kV급 인텔리전트 복합절연 스위치 기어 245kV 40kA 모터드라이브형 초고압 GIS 개발 전류영점 후 아크 파라미터 측정 및 해석·설계기술 개발 등 4개의 세부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산자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그동안 수작업에 의존하던 전기계통의 점검체계를 혁신할 수 있게 돼 전기사고를 줄이고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 전기쫓,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 의결

앞으로는 급전지시에 따라 시운전 기간에 전력을 생산해 공급한 발전사업자는 상업운전과 같은 동일한 용량요금을 정산받을 수 있다.

지난 8일 산업자원부 전기위원회는 제24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력 시장운영규칙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발전사업자가 상업운전에 들어가기 전에 전력거래소의 급전지시로 시운전이 연장되는 기간에 대해서도 상업운전과 동일하게 요금을 정산받게 됐다. 그동안에는 중앙급전대상인 시운전

발전기가 계통의 안정운동을 위해 시운전기간이 연장돼 상업운전이 지연되더라도 용량요금을 받을 수 없어 발전사업자가 손해볼 수밖에 없었다.

전기위원회는 또 발전기의 시설미비로 급전지시의 기준점이 송전단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전단을 기준점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송전단 기준 급전지시가 불가능한 발전기에 대해서는 2005년 12월 31일까지 발전단의 급전지시를 허용키로 했다. 단 연간 발전기정기계획에 의거해 2004년 1월 1일 이후 정지한 뒤 계통에 다시 병입하는 발전기의 경우 계통병입 이전에 송전단 기준 급전지시에 따를 수 있도록 설비를 개선토록 했다.

그리고 비교전력량계용 변성기의 부담이 정격을 초과한 경우 급전자동화설비의 자료취득용으로 주전력량계용 변성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위원회는 이날 인천 송도신도시 집단에너지사업허가 중 발전사업부문 검토(안), 화성·동탄 집단에너지사업 변경허가 중 발전사업부문 검토(안)를 각각 승인했다.

## 중기청, 중기 장기발전전략 수립착수

중소기업청은 지난 24일 산업연구원(KIET),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으로 '중소기업 장기발전 전략' 수립에 착수했다.

중기청은 중소기업을 경쟁력과 기술수준, 인력실태별로 나누어 1만6,000개 기업을 조사했고 과거 지원정책을 평가했다.

이를 토대로 중기청은 향후 10년간의 성장전략, 정책방향, 성장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로드맵 등 종합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25일부터 30일까지 16개 분야별로 제1차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앞으로 매달 1회 워크숍을 개최해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오는 11월 종합토론회를 거쳐 12월 중 전략을 수립, 발표할 예정이다.